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心性(썬썬)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상 물질에 보증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변화인가? 당신이 추구하고 집착했던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당신은 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 하나에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워 넣고 그것의 마개를 꼭 틀어막아 물에 던지면 그것은 역시 물밑까지 가라앉는다. 당신이 그 속의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되 많이 쏟아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은 더욱 높이 떠오를 것이며, 완전히 쏟아버리면 그것은 곧 완전히 떠오른다. 우리는 수련과정 중에서 바로 사람 몸에 존재하는 각종 좋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만 비로소 당신이 승화해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우주의 특성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한다. 당신이 당신의 心性(썬썬)을 수련하지 않아 당신의 도덕수준이 제고되어 올라오지 않고 나쁜 사상, 나쁜 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승화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이 어찌 그것을 일성(一性)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우리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속인 중의 칠정육욕(七情六慾)이 다 있는데 그에게 위로 올라가서 부처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그 대보살(大菩薩)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는 사념(邪念)이 생길지도 모른다. 질투심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와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반드시 속인 중의 각종 좋지 않은 사상을 전부 제거해야만 비로소 당신은 제고해

## 논어(論語)

대법(大法)은 창세주(創世主)의 지혜이다. 그는 천지개벽[開天闢地]·우주조화[造化宇宙]의 근본으로, 내포가 지극히宏大하고 미세하며, 부동(不同)한 천체 층차(層次) 중에 부동한 펼쳐보임[展現]이 있다. 천체의 가장 미세적인 데에서 가장 미세적인 입자의 출현까지, 층층의 입자는 무량무계(無量無計)하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또 인류가 알고 있는 표층의 원자·분자·성체(星體)·성계(星系)에서 더욱 큰 것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크기의 입자가 부동한 크기의 생명과 우주 천체에 두루 퍼져 있는 부동한 크기의 세계를 조성(組成)했다. 부동한 층차의 입자 본체(本體) 상의 생명으로서 말하자면, 이 한 층 입자보다 큰 입자가 바로 그들 하늘 중의 별[星球]인바, 층층이 이러하다. 우주 각층의 생명으로서 말하자면 무궁무진하다. 대법은 또 시간·공간·수많은 종류의 생명 및 만사만물(萬事萬物)을 만들었으며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빠뜨리는 것이 없다. 이는 대법(大法) 眞(쩐)·善(싼)·忍(런) 특성의 부동한 층차에서의 구체적인 체현(體現)이다.

인류의 우주·생명에 대한 탐색 방식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만 저층 우주 중의 인류가 존재하는 공간 일부를 통찰[洞見]하고 있을 뿐이다. 사전(史前) 인류에게 출현한 여러 차례 문명 중에서 모두 다른 별[星球]을 탐색한 적이 있지만, 아무리 높이 아무리 멀리 날았다 하더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류가 우주의 진실한 펼쳐보임[展現]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인류가 우주·시공·인체의 수수께끼[迷]를 요해(了解)하려면 오직 정법(正法) 중에서 수련하여 정각(正覺)을 얻고 생명의 층차를 제고해야만 한다. 수련 중에서 또한 도덕 품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진정한 선과 악·좋고 나쁨을 분별해내며 인류의 층차를 벗어남과 동시에, 비로소 진실한 우주 및 부동한 층차, 부동한 공간의 생명을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

인류의 탐색은 기술 경쟁을 위한 것이고 구실은 생존 조건을 개변한다는 것인데, 많게는 신을 배척하고 인류의 도덕적 자아 단속을 방종하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인류에게 출현했던 문명이 여러 차례 휘멸되었다. 탐색도 물질세계 내에 국한될 수 있을 뿐이고, 방식상에서는 한 가지 사물이 인식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연구한다. 그러나 인류 공간 중에서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존재

이 문제로 의론하고 논쟁해 왔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데, 물질과 정신은 일성(一性)이다. 인체과학 연구 중에서, 현재 과학자들은 사람의 대뇌가 내보내는 사유는 곧 물질이라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람의 정신 중의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곧 일성(一性)이 아닌가? 마치 내가 말한 우주와도 같이 그것의 물질존재가 있고 동시에 그것의 특성존재가 있다. 우주 중의 眞(쩐)·善(싼)·忍(런) 특성, 그의 존재를 속인은 감각하지 못하는데, 속인들은 모두 이 한 층차 면(層次面)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속인의 이 층차를 벗어났을 때 곧 체험하고 관찰해 낼 수 있다. 어떻게 체험하고 관찰해 낼 수 있는가? 우주 중의 어떤 물질이든, 전체 우주 중에 꼭 차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여 모두 영체(靈體)고, 모두 사상이 있으며, 모두 우주의 법이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서 존재하는 형태다. 그가 당신을 승화하지 못하게 하면 당신이 제고하려 해도 제고해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가 곧 당신을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왜 당신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썬썩)이 제고되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 한 층차에는 모두 부동한 표준이 있다. 층차를 제고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좋지 못한 사상을 버리고 당신의 더러운 것들을 쏘아내어 그 한 층차가 요구하는 표준에 동화(同化)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올라올 수 있다.

당신의 心性(썬썩)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에 곧

사람은 또 기공사가 되려 하고 병을 치료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진정한 수련은 당신의 이 마음을 수련해야 하는데, 心性(썬쌩)을 닦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중에서 개인의 칠정육욕(七情六慾), 각종 욕망을 좀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우면서 당신은 공을 자라게 하려 하지만,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당신 이것은 속인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당신의 공이 어찌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心性(썬쌩) 수련을 중히 여겨야만 비로소 당신의 공이 자랄 수 있으며, 층차가 비로소 제고될 수 있다.

心性(썬쌩)이란 무엇인가? 心性(썬쌩)은 德(더)[德(더)는 일종 물질이다]를 포괄하고; 참음(忍)을 포괄하며; 깨달음(悟)을 포괄하고; 버림(捨)을 포괄하는데, 속인 중의 각종 욕망과 각종 집착심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방면의 것을 포괄한다. 사람의 心性(썬쌩)이 여러 방면에서 모두 제고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제고되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는 공력(功力)이 제고되는 관건적인 원인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당신이 말하는 心性(썬쌩) 문제, 이것은 의식형태 중의 것이고 사람의 사상경지 방면의 일로서, 그것과 우리가 연마(煉)하는 공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찌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상계에는 예부터 물질이 일차적인가, 아니면 정신이 일차적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했으며, 늘

하며, 또 확실하게 인류의 현실 중으로 반영되어 올 수 있는 현상은, 정신(精神)·신앙(信仰)·신언(神言)·신적(神跡)을 포함하여, 신을 배척하는 작용하에 지금껏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만약 인류가 도덕을 기초로 사람의 품행과 관념을 제고할 수 있으면, 인류사회의 문명은 비로소 장구(長久)할 수 있고 신적(神跡)도 인류사회에 다시 출현할 것이다. 과거 인류사회 중에도 반신반인(半神半人) 문화가 여러 차례 출현해 인류로 하여금 생명과 우주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제고하게 했다. 인류가 세간에서의 대법의 표현에 대해 마땅히 있어야 할 경건과 존중을 체현할 수 있으면, 사람과 민족 혹은 국가에 행복 또는 영예를 가져다줄 것이다. 천체·우주·생명·만사만물은 우주 대법이 개창(開創)한 것인바, 생명이 그에 어긋나면 곧 진정한 패괴(敗壞)이고, 세인이 그에 부합할 수 있으면 진정 좋은 사람이며 동시에 선보(善報)와 수복[福壽]이 따를 것이다. 수련인으로서 그에 동화하면 당신은 바로 득도자(得道者)——신(神)이다.

리홍쯔(李洪志)

2015년 5월 24일

# 차 례

## 제 1 강

|   |    |
|---|----|
| 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 .....                | 1  |
| 부동(不同)한 층차(層次)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다 .....        | 9  |
| 眞(眞)·善(善)·忍(忍)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 | 15 |
| 기공(氣功)은 사전문화(史前文化)다 .....                   | 20 |
| 기공(氣功)은 곧 수련(修鍊)이다 .....                    | 26 |
| 왜 연공(煉功)해도 공(功)이 자라지 않는가 .....              | 30 |
| 法輪大法(파룬파파)의 특징 .....                        | 45 |

## 제 2 강

|  |    |
|--|----|
| 천목(天目)에 관한 문제 .....                    | 57 |
| 요시공능(遙視功能) .....                       | 77 |
| 숙명통공능(宿命通功能) .....                     | 80 |
| 오행(五行) 중에 있지 않고, 삼계(三界) 밖으로 벗어나다 ..... | 88 |
| 구하고자 하는 문제 .....                       | 96 |

## 제 3 강

|                          |     |
|--------------------------|-----|
| 나는 수련생을 모두 제자로 여긴다 ..... | 111 |
| 불가공(佛家功)과 불교(佛敎) .....   | 113 |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연공(練功)함에 진수를 전해 받지 못했는데, 어느 스승이 나에게 절기(絶招)를 좀 가르쳐주고 고급 수법을 좀 알려 준다면 나의 이 공이 자랄 것이다. 지금 사람들 100분의 95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매우 가소롭다. 왜 가소로운가? 기공은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이 완전히 초상(超常)적인 것이라면 고층차의 이치로 그것을 가늠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공이 올라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말해주겠다: ‘수(修)·련(煉)’ 두 글자에서 사람들이 그 연(煉)만을 중시하고 그 수(修)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밖에서 구하려 하지만, 어떻게 해도 구하지 못한다. 당신이 속인의 신체, 속인의 손, 속인의 사상으로 당신이 고에너지물질을 공으로 연화(演化)하려고 하는가? 자랄 수 있겠는가?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웃음거리다. 이것이 바로 밖에서 구하고 밖에서 찾으려는 것인데, 영원히 찾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속인 중의 무슨 기능처럼 당신이 돈을 좀 쓰고 기술을 좀 배운다고 해서 배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런 일이 아니며, 그것은 속인 이 층차를 벗어난 것이므로 당신에게 초상(超常)적인 이치로 요구하게 마련이다. 어떻게 요구하는가? 당신은 안으로 수련해야 하며 밖에서 찾으려 해서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이 모두 밖에서 구하는데, 오늘은 이것을 구하고 내일은 저것을 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집착심을 품고 공능을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어떤

사조(思潮)가 상당히 심했다. 기공 그것을 사전문화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번 차례 인류문명의 발전과정 중에서 그것이 봉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흔히 봉건적 색채가 아주 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종교와 관계있는 것은 흔히 종교적 색채가 매우 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예컨대 무슨 ‘수도대법(修道大法)’·‘금강선(金剛禪)’·‘나한법(羅漢法)’·‘수불대법(修佛大法)’·‘구전금단술(九轉金丹術)’ 모두 이런 것이다. 만약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불렀다면 당신은 비판당하지 않았겠는가? 설령 기공을 보급하려는 기공사의 소원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많은 군중을 위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신체소질을 높이려는,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안 되므로,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공사가 기공을 보급하기 위해 『단경(丹經)』·『도장(道藏)』 중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두 글자를 뽑아 기공(氣功)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공이라는 용어 속에 파고들어가 연구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연구할 것이 없으며, 과거에는 그것을 수련이라고 불렀다. 기공이란 다만 현대인의 사상의식에 부합(符合)하기 위해 지어낸 새 용어일 뿐이다.

## 왜 연공(煉功)해도 공(功)이 자라지 않는가

왜 연공(煉功)해도 공(功)이 자라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                                      |     |
|--------------------------------------|-----|
| 수련(修煉)은 전일(專一)해야 한다 .....            | 120 |
| 공능(功能)과 공력(功力) .....                 | 126 |
| 반수(返修)와 차공(借功) .....                 | 127 |
| 부체(附體) .....                         | 138 |
| 우주어(宇宙語) .....                       | 149 |
| 스승은 수련생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가 .....          | 153 |
| 에너지장(能量場) .....                      | 165 |
|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은 어떻게 공(功)을 전하는가 ..... | 167 |

## 제 4 장

|                      |     |
|----------------------|-----|
| 실(失)과 득(得) .....     | 173 |
| 업력(業力)의 전화(轉化) ..... | 176 |
| 心性(심성) 제고 .....      | 193 |
| 관정(灌頂) .....         | 203 |
| 현관설위(玄關設位) .....     | 209 |

## 제 5 장

|                  |     |
|------------------|-----|
| 法輪(파룬) 도형 .....  | 221 |
| 기문공법(奇門功法) ..... | 225 |
| 사법연마(練邪法) .....  | 228 |
| 남녀쌍수(男女雙修) ..... | 233 |
| 성명쌍수(性命雙修) ..... | 236 |
| 법신(法身) .....     | 239 |
| 개광(開光) .....     | 241 |
| 축유과(祝由科) .....   | 253 |

## 제 6 장

|                  |     |
|------------------|-----|
| 주화입마(走火入魔) ..... | 255 |
| 연공초마(煉功招魔) ..... | 271 |

|                       |     |
|-----------------------|-----|
| 자심생마(自心生魔) .....      | 283 |
| 주의(주이)가 강해야 한다 .....  | 292 |
| 마음이 반드시 똑바라야 한다 ..... | 294 |
| 무술기공(武術氣功) .....      | 306 |
| 과시심리(顯示心理) .....      | 313 |

## 제 7 강

|                    |     |
|--------------------|-----|
| 살생 문제(殺生問題) .....  | 321 |
| 육식 문제 .....        | 329 |
| 질투심 .....          | 340 |
| 병 치료 문제 .....      | 349 |
|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 ..... | 358 |

## 제 8 강

|                                   |     |
|-----------------------------------|-----|
| 벽곡(辟穀) .....                      | 367 |
| 기(氣)를 흠치다 .....                   | 371 |
| 기(氣)를 채집하다 .....                  | 376 |
|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功)을 얻는다 ..... | 381 |
| 주천(周天) .....                      | 393 |
| 환희심(歡喜心) .....                    | 409 |
| 수구(修口) .....                      | 413 |

## 제 9 강

|                      |     |
|----------------------|-----|
| 기공(氣功)과 체육(體育) ..... | 417 |
| 의념(意念) .....         | 422 |
| 청정심(淸淨心) .....       | 433 |
| 근기(根基) .....         | 441 |
| 깨달음(悟) .....         | 445 |
| 대근기지인(大根器之人) .....   | 456 |

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유심을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념에 따르면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겠는가? 인류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발명한 것들은 모두 이전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인데, 모두 미신으로 본다면 당연히 발전하지도 말아야 한다. 기공 역시 무슨 유심적인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기공을 인식하지 못해 늘 기공을 유심으로 여긴다. 현재 계측기로 기공사의 몸에서 초저주파·초음파·전자파·적외선·자외선·감마선·중성자·원자와 미량 금속원소 등의 성분을 측정해 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역시 물질이다. 어떤 것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다른 시공(時空)도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어찌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공이 기왕 부처수련에 쓰는 것이라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많은, 높고 깊은 문제에 관련되는데, 우리는 모두 말하려고 한다.

기공이 기왕 이런 데 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는가? 사실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지 않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련(修煉)’이라고 하는데, 바로 수련이다. 물론, 그것은 다른 구체적인 이름도 있지만, 정체(整體)적으로는 수련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기공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공이 사회에 보급된 지는 이미 20여 년 역사가 있다. ‘문화대혁명’ 중기에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러서는 고조(高潮)에 진입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때는 극좌적인

누가 기공을 연마(練)하겠는가? 뜻인즉, 기공은 곧 병을 제거하는 것이란 말인데, 그것은 아주 얇고도 얇은 인식이다. 이 점 역시 여러분을 탓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공사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했을 뿐, 누구도 고층차의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의 것을 전하는 것으로서, 기공을 보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고층차로 수련하려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으나, 수련에서 법을 얻지 못한 결과 매우 큰 곤란이 조성되었으며,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물론 진정하게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자면 아주 높은 문제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사람에 대해 책임짐에 따라 공을 전하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어떤 것들은 확실히 아주 높아서 말하면 미신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되도록 현대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일부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곧 미신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표준은 바로 과학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이거나 또는 그 자신이 아직 접촉하지 못한 것이거나 존재할 수 없다고 그가 인식하는 것이면 그는 모두 미신이고 모두 유심(唯心)이라고 여기는데, 그는 바로 이런 관념이다. 이런 관념이 옳은가? 과학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나 아직 이 일보에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 해서 미신이고 유

## 제 1 강

### 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

나는 법(法)을 전하고 공(功)을 전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수련생에 대해 책임짐에 따라 거둔 효과가 좋았으며,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도 비교적 좋았다. 몇 년 전에 많은 기공사들이 공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에 속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공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고층차(高層次)의 것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고 할 뿐이다. 전국의 기공 형세를 나도 다 알고 있다. 국내외에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하는 것은 현재 나 한 사람만이 하고 있다. 왜 고층차로 공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에 연관되는데, 연관되는 역사 연원(淵源)이 아주 깊고, 연관되는 면도 아주 넓으며, 관련되는 문제도 아주 첨예(尖銳)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시 일반인이 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많은 공파(功派)의 것을 건드리는 것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많은 연공인(練功人), 그가 오늘은 이 공(功)을 배우고 내일은 저 공을 배워 자신의 신체를 난잡하게 만드는데, 그는 필연적으로 수련해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한 갈래 큰길에서 위로 수련하고 있지만, 그는 모두 갈림길이라 그가 이것을 수련하면 저것이 교란하고, 저것을 수련하면 이것이 교란하는데, 모두 그를 교란하고 있어 그는 이미 수련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모두 정리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제거해 버림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충하지만, 반드시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배우러 온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각종 집착심을 품고 와서, 공능(功能)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며, 이론이나 좀 들으려 하고, 또는 무슨 좋지 않은 목적을 품고 온다면 이것은 모두 안 된다. 내가 말했듯이 이 일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기회가 많지 않고 나 역시 늘 이렇게 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게 될 텐데, 당신은 이 시간이 매우 보람찼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연분(緣份)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연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고층차로 공을 전함은 무슨 문제인가? 그것은 곧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제도함

가수련대법(佛家修煉大法)이므로 당연히 부처수련을 하는 것이고, 그 도가(道家)는 당연히 도를 닦아 득도(得道)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불(佛)’이란 미신이 아니다. 이 ‘불’은 범어(梵語)로서 고대 인도어다. 당시 우리 중국에 전해 들어올 때는 두 글자로서 ‘불타(佛陀)’라 했고, 또 그것을 ‘부도(浮圖)’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전해오고 전해가면서, 우리 중국 사람은 한 글자를 생략하여 그것을 ‘불(佛)’이라고 했다. 중국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 바로 각자(覺者)이며, 수련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 어디 미신 색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수련하면 특이공능(特異功能)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공능이 여섯 가지 있는데, 또 이런 것에 그치지 않으며, 진정한 공능은 만여 종이나 된다고 나는 말한다. 사람이 거기에 앉아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손발을 움직여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우주 각 공간의 진정한 이치를 보고, 우주의 진상을 볼 수 있으며; 속인이 보지 못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수련하여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닌가? 대각자(大覺者)가 아닌가? 속인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수련하여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각자(覺者)라고 부름이 틀리는가? 고대 인도어로 번역하면 곧 불(佛)이다. 사실 바로 이러하며, 기공은 바로 이런 데 쓴다.

기공을 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한다: 병이 없고서야



가모니는 또, 자신 이전에도 원시육불(原始六佛)이 있었고, 자신에게도 사부(師父)가 있었다는 등등, 모두 몇억 겁 전에 수련하여 득도했다고 한 적이 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모두 정말이라면,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해오는 그런 진정한 정통공법(正統功法)·진전공법(眞傳功法)에는 곧 이런 수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다. 현재 가짜기공(假氣功), 거짓기공(僞氣功), 부체(附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멋대로 일부 것들을 짜 맞춰 사람을 속이는데, 진정한 기공보다 몇 배나 많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 진정한 기공은 변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으며, 찾기도 그리 쉽지 않다.

사실 기공만이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온 것이 아니라 태극(太極)·하도(河圖)·낙서(洛書)·주역(周易)·팔괘(八卦) 등등이 모두 사전(史前)에서부터 남겨 내려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속인의 각도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식해서는 어떻게 해도 명백하게 연구해 내지 못한다. 속인의 이런 층차, 이런 각도, 이런 사상경지 중에서는 진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기공(氣功)은 곧 수련(修煉)이다

기왕 기공이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데 쓰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이것은 불

이라, 당신은 진정으로 수련하는 것이지, 단지 병을 제거하고 몸이나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련은 수련생의心性(심성)에 대한 요구도 높게 마련이다.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법(大法)을 배우러 온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진정한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며, 당신은 집착심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각종 구하려는 목적을 품고 와서 공(功)을 배우고 대법(大法)을 배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겠다: 사람의 전반 수련과정은 바로 끊임없이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속인사회 중에서 서로 다투고 빼앗고,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개인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이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우리 오늘날 공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더욱 내려놓아야 한다.

나 여기에서는 병 치료를 말하지 않으며,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진정하게 수련하려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병 있는 몸을 가지고서는 당신은 수련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려고 한다. 신체 정화는 오직 진정하게 공을 배우러 온 사람, 진정하게 법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만 국한한다.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한다: 당신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당신이 그 병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을 어찌할 방도가 없다. 무엇 때문인가? 이 우주 중에는, 불가(佛家)의 말에 의하면, 속인 중의

일은 모두 인연(因緣) 관계가 있어서 속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존재한다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예전에 나쁜 일을 하여 생긴 업력(業力) 때문에 병이나 마난(魔難)이 조성된다. 고통을 겪음은 바로 업력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고칠 수 없는데, 고친다면 빚을 지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고; 또 함부로 제멋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나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남의 병을 치료해 주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병을 진정하게 치료하지 못했는데, 모두 병을 미루어 놓았거나 전화(轉化)했을 뿐, 그것을 없애버리지는 못했다. 진정하게 이 난(難)을 제거하려면 업력을 없애버려야 한다. 만약 진정하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업력을 철저히 없애버리는, 여기에 진정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층차는 역시 낮지 않다. 그는 이미 한 가지 이치를 보았는데, 속인 중의 이치는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련과정 중에서, 수련자가 자비심에서 일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 병을 치료하며,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것은 허용하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해 줄 수는 없다. 만약 정말로 속인의 병을 뿌리째 없애버릴 수 있다면, 수련하지 않는 한 속인이 아무 병도 없이 여기서 나간다 해도, 문만 나서면 여전히 속인이므로 개인 이익에서 여전히 속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의 운동은 이 드넓은 우주 중에서, 은하계의 운행 중에서 순풍에 돛 단 듯이 순조로울 수는 없는데, 어느 별과 충돌하거나,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대단히 큰 재난이 조성되었을 수 있다. 우리 공능의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렇게 안배한 것이다. 한번은 내가 자세히 밝혀보았는데, 인류는 81차례 완전한 궤멸상태에 처했고, 다만 소수 사람만 살아남아서 원래의 사전문명을 조금 남겼으며, 다음 시기로 들어가서 원시 생활을 했음을 발견했다. 인류가 많이 번성하여 퍼지면서, 최후에 또 문명이 출현했다. 81차례 이런 주기적인 변화를 거쳤는데, 나는 이를 아직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중국 사람은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를 중시한다. 부동(不同)한 천상변화(天象變化), 부동한 천시(天時)는 속인사회에 부동한 사회 상태를 가져다줄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물질운동에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앞에서 사전문화를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로 이런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기공도 오늘의 우리 인류가 발명해 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 온 것으로서, 역시 일종의 사전문화다. 우리는 경서 중에서 역시 일부 논술을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 당시에, 그는 몇억 겁(劫) 전에 수련 성취하여 득도했다고 한 적이 있다. 1겁은 몇 년인가? 1겁은 수억 년이다. 이렇게 방대한 숫자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하다. 만약 정말이라면, 이는 인류의 역사, 지구의 전반적인 변화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석

로서 다윈의 진화론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은 매우 많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발견한 것만으로도 우리 오늘날의 교과서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인류 고유(固有)의 오랜 관념이 한 세트의 사업·사유방법으로 형성된 후에는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진리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배척한다. 전통 관념의 영향으로 현재 이런 것들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념은 언제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말하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견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며 받아들이지 못한다.

국외의 많은 대담한 과학자가, 이미 그것은 일종의 사전문화로서, 우리 인류의 이번 차례 문명 이전의 문명이며, 바로 우리 이번 문명 이전에 또 문명시기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출토된 문물로 보면 모두 한 문명시기 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여러 차례 문명에 궤멸성 타격을 받은 후, 단지 소수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원시생활을 했고, 또 점차적으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고 퍼져 새로운 문명으로 진입했다고 여겼다. 그런 후에 또 궤멸로 나아갔고, 또다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여 퍼져 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부동(不同)한 하나하나의 주기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운동에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우주의 변화 역시 법칙이 있다.

지로 쟁탈할 것인데, 어떻게 그의 업력을 함부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이 가장 진귀하기 때문이다. 그가 수련하려 하기에 내보내는 이 일념(一念)이 가장 진귀한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불성(佛性)을 말하는데, 불성이 나오기만 하면 각자(覺者)들은 그를 도와줄 수 있다. 무슨 뜻인가? 내가 말하겠는데, 나는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기 때문에 고층차 중의 이치와 관련되며, 관련되는 문제가 매우 크다. 이 우주 중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보면, 속인사회 중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생성(產生)은 우주공간 중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우주 중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많고 많은 각종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상호운동하에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최초 생명은 우주 중에서 온 것이다. 우주공간은 본래 선량한 것이고,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는 우주와 동성(同性)이었다. 그러나 생명체가 많이 생겨나자 일종의 군체(群體)적 사회관계가 발생했다.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마 사심(私心)이 증가됨으로써 그들의 층차가 서서히 낮아져 이 한 층차 중에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은 곧 아래로 떨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층차 중에서 또 그다지 좋지 못하게 변해 그들은 또 있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 아래로 떨어져 최후에는 인류 이 한 층차 중까지

떨어져 내려왔다.

온 인류사회는 모두 한 층차 중에 있다. 이 일보에 떨어진 것을 공능의 각도에서 보거나 혹은 대각자(大覺者)의 각도에서 보면, 본래 이런 생명체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각자들은 자비심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 차례 기회를 주려고 이런 특수한 환경, 특수한 공간을 구성했다. 이 공간의 생명체는 우주 중의 모든 공간의 생명체들과는 다 다르다. 이 공간의 생명체는 다른 공간의 생명체를 보지 못하고, 우주의 진상(眞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미혹 중에 빠진 것과 같다. 만약 병을 낫게 하고 난(難)을 제거하며 소업(消業)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련하고, 반본귀진(返本歸眞)해야 하는데, 이것을 각종 수련 중에서는 모두 이렇게 본다. 사람이 반본귀진하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불성(佛性)이 나왔다고 본다. 이 일념(一念)이 가장 진귀하다. 왜냐하면 그가 반본귀진하려 하고, 속인 이 층차 중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아마 불교 중에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불성이 나오면十方세계(十方世界)를 진동한다. 누가 보든지 모두 그를 도와주려 하며, 조건 없이 그를 도와준다. 불가는 사람을 제도함에 조건을 논하지 않고, 대가도 없으며, 조건 없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련생들에게 아주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속인으로서는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줄곧 유럽사람 갈릴레이가 발명한 망원경은 현재까지 3백여 년 역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도대체 3만 년 전에 누가 이 망원경을 발명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많고도 많다. 예컨대 프랑스·남아공·알프스 산의 많은 암석 동굴에는 석판 벽화들이 있는데, 새긴 것이 진짜 같아 마치 살아 있는 듯하다. 새겨진 사람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종의 광물질 안료로 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현대인의 옷차림이었는데, 양복과 비슷한 옷에 팽팽한 바지를 입었다. 어떤 사람은 담뱃대 비슷한 것을 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모자를 썼다. 몇십만 년 전의 원숭이가 어찌 이렇게 예술 수준이 높을 수 있단 말인가?

좀 더 먼 것을 말해 보자.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에는 우라늄 광석이 있는데, 이 나라는 비교적 낙후하여 스스로는 우라늄을 제련할 수 없어 그것을 선진국에 수출했다. 1972년, 프랑스의 한 공장에서 이 우라늄 광석을 수입했다. 화학분석을 거쳐 이 우라늄 광석이 모두 이미 제련되어 이용되었던 것임을 발견했다. 너무도 이상해서 과학기술자를 파견하여 조사했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도 현지조사를 했다. 최후에 이 우라늄 광산은 대형 핵반응로임이 실증되었으며, 배치 또한 아주 합리적이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세운 것인가? 20억 년 전이고, 그것은 50만 년을 운전(運轉)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

상태로 안정되기까지는 이미 몇천만 년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많은 대양(大洋) 밑에서 오히려 높고 큰 고대 건축물들을 발견했다. 이런 건축물들은 조각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현재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건조(建造)했을 것이다. 그러면 몇천만 년 전에 누가 이런 문명을 창조했는가? 그때 우리 인류는 아직 원숭이조차도 아니었을 텐데, 어찌 이처럼 고도로 지혜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었겠는가? 세계적으로, 고고학자들이 한 가지 생물을 발견했는데 ‘삼엽충(三葉蟲)’이라고 하며, 그것은 6억 년에서 2억 6천만 년 전의 산물(産物)로서, 2억 6천만 년 전 그 이후에는 이런 생물이 없어졌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삼엽충’ 화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윗면에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을 신고 디딘 것이 윗면에 아주 또렷이 찍혀 있었다. 이것은 역사학자와 농담하는 것이 아닌가? 다윈의 진화론을 따른다면, 2억 6천만 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페루 국립대학 박물관에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돌에는 한 사람의 상(像)이 새겨져 있다.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의 상은 3만 년 전에 새긴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상은 오히려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며, 신을 신고, 손에는 또 망원경을 들고 천체(天體)를 관찰하고 있다. 3만 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베를 짜고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그가 또 망원경을 들고 천체를 관찰하고 있으니, 일정한 천문지식까지

다만 속인이 되려는 사람, 그가 병을 낫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내 병이 나으면 나는 수련하겠다. 수련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바,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수련하라. 그러나 병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몸에 있는 정보가 여전히 아주 난잡하며, 어떤 사람은 전혀 공을 연마(練)한 적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을 몇십 년 연마했어도 여전히 기(氣)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역시 수련해 올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어 그로 하여금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게 한다. 가장 낮은 층차에서 수련할 때에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당신의 신체를 완전하게 정화해 주어 사상 속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 신체 주위에 있는 업력장(業力場)과 신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전부 다 청리(清理)해 내보내는 것이다. 청리하지 않으면, 이런 혼탁한 신체, 거무칙칙한 신체와 더러운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고층차 수련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여기에서는 기를 연마(練)하지 않기에 저층차(低層次)의 이런 것들은 당신이 연마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을 밀어주어 당신의 신체가 병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 저층차에서 기초를 닦아야 할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진 한 세트당신에게 넣어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높은 층차에서 연공(煉功)하게 된다.

수련의 설에 따르면, 기(氣)를 포함하면, 세 층차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수련[기 연마(練氣) 제외]에는 모두 두 큰 층차가 있다. 하나는 世間法(쓰젠파) 수련이고, 다른 하나는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이다. 이 世間法(쓰젠파)·出世間法(추쓰젠파)는 절에서 말하는 출세간(出世間)·입세간(入世間)과는 다른데,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인체수련의 두 큰 층차의 변화다. 왜냐하면 世間法(쓰젠파) 수련과정 중에서 사람의 신체는 모두 끊임없이 정화(淨化)되고 끊임없이 정화되어, 世間法(쓰젠파)의 최고 형식에 이르렀을 때 신체는 이미 완전히 고에너지물질(高能量物質)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체(佛體)수련이고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로서, 모든 공능이 새롭게 다시 나온다.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이 두 큰 층차다.

우리는 연분(緣份)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해줄 수 있다. 우리는 현재 2천여 명이지만, 몇천 명, 심지어 더욱 많은 사람, 만여 명이라도 나는 모두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저층차에서 당신은 더 연마(練)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신체를 정화한 다음에 당신을 밀어주는데, 나는 당신에게 한 세트 완성(完整)한 수련체계를 넣어주어 당신이 시작하자마자 직접 고층차에서 수련하게 한다. 그러나 다만 진정으로 수련하러 온 수련생에 한해서만 해주며,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당신을 곧 수련자라고 할 수는 없다.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우리가

도 사용할 줄 모르는, 완전히 그런 야만인 그런 원시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리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 세계 여러 곳에 많고 많은 문명 고적이 남아 있는데, 모두 우리 인류의 문명 역사를 훨씬 넘어섰다. 이런 고적들은 공예 각도에서 보면 모두 매우 높은 공예 수준을 가졌고, 예술 수준으로 보면 무척 뛰어나 현대인은 그야말로 모두 고대인의 예술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높은 감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십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심지어 억 년 전에 남겨 놓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오늘날의 역사와 농담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농담이랄 것도 없는데, 인류 역시 자신을 끊임없이 완벽(完善)하게 하고 있고,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서, 처음 인식이 꼭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사전문화(史前文化)’라는, 또는 ‘사전문명(史前文明)’이라고도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인데, 우리 그 사전문명을 이야기해 보자. 지구에는 아시아 주·유럽 주·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주·아프리카 주와 남극주가 있는데, 지질학자는 그것들을 통칭하여 ‘대륙판’이라고 한다. 대륙판이 오늘날의 형태로 형성되기까지는 이미 몇천만 년의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육지가 바다 밑에서 올라왔고, 또 많은 육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오늘날의 이

(련)을 동시에 수련하므로, 우리가 연마(煉)하는 공(功)은 대단히 크다.

### 기공(氣功)은 사전문화(史前文化)다

기공이란 무엇인가? 많은 기공사가 모두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많은 기공사가 그 한 층차 중에서 말하지만, 나는 더욱 높은 층차에서 기공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그들의 인식과는 뚜렷이 다르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기공은 우리나라에서 2천 년 역사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3천 년 역사가 있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 중화민족의 문명역사와 비슷하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출토된 문물로 보면 7천 년의 역사가 있어 우리 중화민족의 문명역사를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인식하든 모두 인류의 문명역사를 그다지 많이 넘어서지 못했다. 다윈의 진화론(進化論)에 따르면 인류가 수생식물에서 수생동물에 이르고, 그 후 육지로 기어 올라오고, 또 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원인(猿人)이 되고, 최후로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는 현대인류로 진화하기까지 추산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진정한 문명의 출현은 역시 만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 이전으로 추리해 보면 결승기사(結繩記事)마저도 없다. 그것은 바로 나뭇잎을 두르고 날고기를 먹었으며, 더 이전에는 아마 불조차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에 그치지 않으며, 나중에 당신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병 치료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생의 신체를 정체(整體)적으로 조정(調整)해 주는 것을 중시하며, 당신이 연공(煉功)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이 병이 있는 신체를 가지고서는 당신은 공이 아예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를 찾아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나 역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나온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으로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 부동(不同)한 층차(層次)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다

과거에 많은 기공사가 기공에는 무슨 초급·중급·고급적인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모두 기(氣)이고 모두 기를 연마(練)하는 그 한 층차 중의 것인데, 또한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었다. 진정한 고층차의 것은 우리 수많은 기공 수련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으며, 전혀 모른다. 앞으로 우리가 논술하려는 것들은 모두 고층차 중의 법이다. 또한 나는 수련을 위해 명칭을 바로잡아 주려 한다. 나는 강의 중에 수련계의 일부 불량한 현상을 말하려 한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는가를 나는 모두 말하려 하며; 또 고층차 중에서 공을 전하고 법을 말하려면 관련되는 면, 관련되는 문제가 모

두 비교적 클 뿐 아니라 심지어 아주 첨예하므로 이런 일들, 그것 역시 나는 말하려 하며; 일부 다른 공간에서 오는 우리 속인사회에 대한 교란, 특히 수련계에 대한 교란, 그것 역시 나는 말하려 하고, 동시에 우리 수련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공을 연마(煉)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이래야만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단번에 당신의 사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당신은 천천히 당신의 사상을 바꾸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주의하여 듣기 바란다. 내가 공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을 전하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을 전하면서 그는 단지 그의 공리(功理)만 간단히 말하고, 그 다음에 정보나 좀 받아들이게 하며, 한 세트 수법(手法)을 가르쳐 주고는 끝낸다.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공을 전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진정으로 공(功)을 전하려면 법(法)을 말해야 하고, 도(道)를 말해야 한다. 10회 강의 중에서 내가 고층차의 이치를 모두 명백히 논술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수련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의 것이다. 당신이 고층차로 수련하려 해도 당신을 지도할 고층차 중의 법이 없으면 당신은 역시 수련할 수 없다. 마치 당신이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은데, 당신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다면 수련하는 사람으로서는 곧 우주의 이 특성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하며, 속인의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반본귀진(返本歸眞)하려 하고 당신이 수련해 올라오려 한다면, 당신은 이 표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 사람으로서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이 특성에 순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사람이고, 이 특성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은 진정 나쁜 사람이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꼭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다고 해서 당신이 꼭 정말로 좋은 것도 아니다. 수련자로서, 이 특성에 동화하면 당신은 곧 도(道)를 얻은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간단한 이치다.

도가(道家)는 眞(眞)·善(善)·忍(忍)을 수련함에 진(眞)을 중점적으로 수련한다.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수진양성(修真養性)을 말하는데, 참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고, 참된 사람이 됨으로써 반본귀진하여 최후에 진인(眞人)으로 수련 성취한다. 그러나 인(忍)도 있고 선(善)도 있는데, 중점을 진(眞)에 두고 수련한다. 불가(佛家)는 眞(眞)·善(善)·忍(忍)에서 선(善)에 중점을 두고 수련한다. 선을 수련하기 때문에 대자비심(大慈悲心)을 수련해 낼 수 있는데, 자비심이 나오기만 하면 중생이 모두 고생스러움을 보게 되므로 곧 소원을 품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 한다. 그러나 진(眞)도 있고 인(忍)도 있는데, 선(善)에 중점을 두고 수련한다. 우리法輪大法(파륜파파), 이 한 법문은 우주의 최고 표준-眞(眞)·善(善)·忍



한 방면이고; 동시에 그것은 또 眞(眞)·善(善)·忍(忍) 특성이 존재한다. 어떤 물질의 미립자 중이든지 모두 이런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극히 작은 미립자 중에도 모두 이런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은 우주 중에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이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바로 그로써 가늠한다. 우리가 과거에 말한 德(덕)도 마찬가지다. 물론 오늘날 인류사회의 도덕수준은 이미 변화가 일어나 도덕표준이 모두 비뚤어졌다. 지금 어떤 사람이 뇌봉(雷鋒)을 따라 배운다면 아마 그를 정신병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륙십 년대에는 누가 그를 정신병자라고 했겠는가? 인류의 도덕수준이 크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세상 기풍이 나날이 나빠져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의 고만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서로 다투고 빼앗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당신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데, 그는 자신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은 또 이미 미끄러져 내려온 도덕 수준으로 자신을 가늠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가늠하는 표준마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류의 도덕표준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이 우주의 특성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그

가지고 대학을 다닌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어떤 사람은 배운 공이 많다고 여기는데, 이런 공, 저런 공, 수료증만 해도 그렇게 한 더미나 된다. 그러나 그의 공은 여전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이런 것이 바로 기공의 참뜻이며 전부라고 여기는데, 아니다. 그것은 다만 기공의 겉모양이고 최저층차의 것일 뿐이다. 기공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수련(修煉)으로서 박대정심(博大精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또 부동한 법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를 연마(練)하는 것과는 다른데,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영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고, 당신이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으며, 당신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고, 당신이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기공의 저층학과를 당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 가득 부어넣을수록 당신에게는 오히려 더욱 해로운데, 당신의 몸은 이미 난잡해졌다.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수련은 공을 전하고 법을 말해야 한다. 일부 사원 중의 화상(和尚), 특히 선종(禪宗)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설법한다는 말만 들어도 그는 듣기 싫어한다. 무엇 때문인가? 선종은 인식한다: 이 법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법은 일단 말하기만 하면 곧 법이 아니므로 말할 법이 없으며, 다만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종은 오늘에 이르러 아무런 법도 말

하지 못한다. 선종의 달마가 이것을 전한 것은 석가모니의 한마디 말에 근거했다. 석가모니는 법무정법(法無定法)이라고 했다. 그는 석가모니의 이 말에 근거해 선종 법문(禪宗法門)을 창립했다. 우리는, 이 법문은 곧 쇠뿔 끝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쇠뿔 끝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하는가? 달마가 시작해서 안으로 파고들 때는 그래도 꽤 넓다고 느꼈고, 이조(二祖)가 파고들 때는 그리 넓지 못했으며, 삼조(三祖)는 그저 그런 정도였고, 사조(四祖)는 이미 매우 좁아져 버렸으며, 오조(五祖)는 기본상 별로 파고들 곳이 없었고, 육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서는 정점에 도달하여 더는 파고들 수가 없었다. 오늘날 당신이 만약 선종에 가서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묻지 말라.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에게 묻기만 하면 뒤돌아 몽둥이로 당신의 머리를 치는데, ‘방할(棒喝)’이라고 한다. 그 뜻은, 당신은 묻지 말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이다. 당신은 말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와서 배우려는 것인데, 무엇을 깨달으란 말인가? 당신이 날 몽둥이로 치다니?! 이것은 바로 이미 쇠뿔 끝까지 파고들어서 더는 무슨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달마, 그마저도 육조(六祖)까지만 전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고 했다. 몇백 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선종의 이치를 한사코 부동켜안고 놓지 않는다. 석가모니가 말한 ‘법무정법(法無定法)’의 진정한 함의(涵義)는 무엇인가? 석가모니가 있는 층차는 여래(如來)인데, 그 후의 많은 승려를 포함해

특성 眞(眞)·善(善)·忍(忍), 그가 바로 불법의 최고 체현이며, 그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불법이다. 불법은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체현 형식이 있으며,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이 있는데, 층차가 낮을수록 표현이 더욱 번잡하다. 공기미립자·돌·나무·흙·강철·인체, 모든 물질 속에는 모두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이 존재하며; 고대에는 오행(五行)이 우주 중의 만사만물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역시 모두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이 존재한다. 수련하는 사람이 어느 층차까지 수련되면 다만 그 층차 중의 불법의 구체적인 체현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련한 과위(果位)·층차(層次)다. 펼쳐 놓고 말하면 법은 매우 크다. 극히 높은 곳에 이르러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왜냐하면 법은 마치 피라미드 모양과도 같기 때문이다.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세 글자로 개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眞(眞)·善(善)·忍(忍)이며, 각개 층차에서 현현(顯現)하면 극히 복잡하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도가(道家)에서는 인체를 소우주(小宇宙)로 본다. 사람에게에는 물질신체가 있지만, 이 물질신체만 가지고는 완정(完整)한 사람을 구성할 수 없으며, 또 반드시 사람의 성격(脾氣)·천성(秉性)·특성(特性)·元神(웬션)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완정하고 독립적이며 자아개성을 가진 사람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은하계와 기타 성계(星系)가 있고 또 생명과 물이 있는데, 이 우주 중의 만사만물, 이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사회를 갓 벗어나 사상적으로 비교적 단일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법이었다. 그가 말한 말법시기(末法時期)가 바로 오늘날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미 그 법으로는 수련할 수 없게 되었다. 말법시기에는 절의 화상(和尚)마저도 자신을 제도하기 매우 어려운데, 하물며 남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가 당시에 전한 법은 그런 정황에 맞추어 전한 것일 뿐, 그도 자신이 있는 층차에서 알고 있는 불법의 전부를 다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게 유지하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의 사상도 갈수록 복잡하게 변해 사람들에게 더는 이렇게 수련해 나가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불교 중의 법은 전체 불법을 개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다만 불법 중의 작디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또 많은 불가대법(佛家大法)이 민간에서 유전(流傳)하고 있으며, 역대로 단독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不同)한 층차에 부동한 법이 있고, 부동한 공간에 부동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불법이 각개 공간, 각개 층차 중에서 부동(不同)하게 체현된 것이다. 석가모니도 부처수련에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불교 중에는 단지 선종(禪宗)·정토(淨土)·천태(天台)·화엄(華嚴)·밀종(密宗) 등 10여 개 법문이 있을 뿐, 불법 전부를 개괄하지 못한다. 석가모니 본인도 그의 법 전부를 전하지 않았고, 단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그것의 일부를 전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법인가? 이 우주 중의 가장 근본적인

모두가 석가모니의 층차, 그의 사상경지 중의 심태(心態), 그가 말한 법의 진정한 함의와 그가 한 말의 진정한 함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여 아주 혼란스럽게 해석했으며, 범무정법이란 바로 당신이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기만 하면 곧 법이 아니라고 여겼다. 사실 이런 뜻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한 후, 단번에 여래 이 층차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는 49년간 내내 법을 전하는 중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제고(提高)했다. 그가 매 층차를 제고할 때마다 돌이켜보면 방금 자신이 말한 법이 모두 맞지 않았다. 다시 제고한 후에 그는 말한 법이 또 맞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가 또 제고한 다음에, 그는 방금 말한 법이 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49년간 내내, 그는 모두 이렇게 끊임없이 승화했으며, 매 층차를 제고한 뒤마다, 그가 이전에 말한 법이 모두 인식상에서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매 층차의 법은 모두 법의 매 층차 중의 체현(體現)이며, 매 층차에는 모두 법이 있지만, 모두 우주 중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발견했다. 한 층 높은 층차의 법은 한 층 낮은 층차의 법에 비해 우주의 특성에 더 접근했기 때문에 그는 범무정법(法無定法)이라고 했다.

최후에 석가모니는 또 말했다: 나는 일생 동안 아무런 법도 말하지 않았다. 선종은 또 말할 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석가모니는 만년(晩年)에 이미 여래 층차에 도달했는데

그는 왜 아무런 법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가? 그는 사실 어떤 문제를 말한 것인가? 그는 말했다: 나는 여래 이 층차에 도달했지만, 나 역시 우주의 최종적인 이치, 최종적인 법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후세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절대적인 진리, 변치 않는 진리로 여기지 말도록 했는데, 그렇게 여기게 하면 후세 사람들을 여래 또는 여래 이하 층차 중에 국한하여, 더 높은 층차로 돌파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은 말하기만 하면 곧 법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이해했다. 사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말했다: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으며, 매 층차의 법은 모두 우주 중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만, 이 한 층차 중의 법은 이 한 층차 중에서는 지도 작용이 있다. 그는 사실 이런 이치를 말했다.

과거에 많은 사람, 특히 선종은 줄곧 이런 일종의 편견과 극단적으로 그릇된 인식을 유지해 왔다. 당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연마(煉)를 지도하고, 어떻게 연마하며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불교 중에는 많은 불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 천국에 이른 후 위의 『금강경(金剛經)』과 아래의 『금강경』은 매 글자가 모두 다르며 의미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이 『금강경』과 속인세상의 그 『금강경』은 어찌하여 다른가?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극락세계의 경서(經書)와 아래의 것은 모습이 그야말로 달라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었으며, 글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함의·의미도 전부 다 다르게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동일한 법이라도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모두 부동한 변화와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으며, 수련자에게는 부동한 층차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교 중에는 『서방극락세계유람기』라는 소책자가 한 권 있는데, 한 승려가 가부좌하고서 연공(煉功)할 때 元神(웬선)이 극락세계에 가서 경관을 보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 인간세상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그가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보았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진상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의 층차가 미치지 못해, 다만 그의 이 층차 중에서 그가 마땅히 보아야 할 불법(佛法)의 체현만을 그에게 현현(顯現)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는 바로 법이 구성해 낸 체현이기 때문에 그는 진상을 볼 수 없다. 나는 이 법무정법(法無定法)이란 바로 이런 함의라고 말한다.

**眞(전)·善(싼)·忍(런)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불교 중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佛法)인가를 줄곧 탐구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중에서 말하는 법이 곧 불법의 전부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아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법은 다만 2천5백 년 전의 층차가 극히 낮은 그런 속인들, 즉 원시